

중요문화재 하코다테 하리스토스 정교회 부활성당

하코다테 하리스토스 정교회는 1860년 러시아 영사관의 부속 성당으로 건립된 것이 시초입니다. ‘하리스토스’란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발음을 바탕으로 한 교회 슬라브어, 러시아어의 발음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본 하리스토스 정교회에서 사용되는 표기입니다.

1861년 성 니콜라이(1836-1912)가 러시아에서 부속 성당 사제로 하코다테에 파견되었으며, 1868년 처음으로 3명의 일본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 니콜라이는 1872년 도쿄로 옮겨가 일본 전국에서 정교회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교회의 주성당인 도쿄 부활 대성당(니콜라이당)의 건설 자금을 모았습니다.

처음 건립된 목조 성당은 1907년 대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916년 현재의 2대째 성당(주의 부활성당)이 벽돌 구조로 재건되었습니다. 새하얀 회반죽 벽과 녹색색 지붕, 팔각형 종각 등 러시아 비잔틴 건축양식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성당 내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이코노스타시스(성화벽)로 ‘왕문’이라 불리는 신성한 입구를 이콘(성상)으로 뒤덮은 나무 벽입니다. 성화벽에는 예수, 천사 가브리엘, 성모 마리아, 사복음서기자, 최후의 만찬과 함께 축일과 성인을 그린 러시아 이콘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한 여성 정교회 이콘 화가인 야마시타 린(1857-1939)이 그린 작품 12점도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코노스타시스와 성당은 1983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코다테 하리스토스 정교회에는 지금도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참배자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종각의 종이 리듬과 함께 멜로디를 연주하여 ‘간간테라(땡땡절)’라고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종소리는 ‘일본의 음풍경 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